



정의의 종

Vol. 20 2010. 12.

발행인: 정종섭 | 편집인: 한기정

151-743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산 56-1

Tel : 02-880-6866 | Fax : 02-889-7196

http://law.snu.ac.kr

2010년 법과대학 학술제



201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제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4일간 법과대학 근대법학 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앞 정의의 종에서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종을 치며 시작을 알렸다. > 2 page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 학술교류 협정 체결



우리대학은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School of Law, Renmin University of China)과 12월 2일 학술협정 및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익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과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대학과 중화권 대학과의 학생교류협정은 국립대만대, 베이징대, 칭화대에 이어 중국인민대까지 네 학교로 늘어났으며, 우리대학은 재학생들의 활발한 해외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 후보 추천 공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후보자 추천대상은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교와 동창회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 법대인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이다.

후보추천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후보추천요령은 소정양식에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접수처로 우송하면 된다.

• 접수문의

서울시 관악로 2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84동) 302호 동창회 사무처
(전화 : 736-2266~7, 팩스 : 736-2265)

Contents

2	2010년 법과대학 학술제
3 - 7	법대소식 / 법대초청강연
8 - 9	센터별소식
10	공개강좌
11	교수동정, 교수신간소개
12	발전기금,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2010년 법과대학 학술제



201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제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4일간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9월 3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앞 정외의 종에서 봄부터 여름방학동안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종을 치며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바로 사법학회에서 준비한 제43회 민사모의재판이 열렸다. ‘달콤 살벌한 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의재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가수그룹과 기획사 간의 분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여훈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장정환 판사와 김미진 판사가 각각 우배석판사와 좌배석판사로,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장효정, 정재은, 이재성, 송요훈(모두 법대08)학생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박운주(로스쿨1기), 연승호, 김동현(모두 법대08)학생이 참여하였다. 또 인문대, 공대, 음대, 자유전공학부 등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증인으로 분해 모의재판에 흥미를 더했다. 한편, 사법학회는 법학대학원으로서의 전환을 맞아 이번 학술제 모의재판을 끝으로 법과대학 학술제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밝혔다.



9월 7일에는 국제법학회에서 준비한 제43회 모의국제사법재판이 개최되었다. ‘해수면 상승과 국토 수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가상의 국가인 Tuvala와 Korana 간에 벌어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의 형식으로 다루었다. 재판부에는 법무법인 두우&이우의 신철민 변호사가 재판장을, 김도형 여주지원 판사가 부재판장을, 김성민 군법무관이 재판관을 맡아 참석하였다. 그리고 Tuvala 측 변호인단으로는 김가해, 이지영, 이지혜(모두 법대 08) 학생이, Korana 측 변호인단으로는 곽예람(법대 08), 서유근(자유전공 09), 전하영(법대 08) 학생이 참여하여 약 3시간동안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후 감사패 전달식과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모의재판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법과대학 학술제를 준비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우들이 용기와 힘을 주어 학술제를 마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금까지 서울법대 학술제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번 모의재판을 지켜본 교수들도 성실히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이 자랑스러우며, 대학시절의 열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서울법대 학술제의 빛나는 업적이 앞으로도 계속 계승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제4회 베세토 컨퍼런스 (BESETO Conferenc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우리대학과 중국의 북경대, 일본의 도쿄대가 참여하는 제4회 베세토 컨퍼런스(BESETO Conference)가 ‘Recent legal changes reconciling asian uniqueness with global standards’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0일 열렸다.

세션 1에서는 Xixin Wang(PKU) 교수의 진행으로, ‘Montesquieu’s significance for contemporary Japan’라는 주제로 Yasuo HASEBE(UT) 교수, ‘Perspectives of East Asian Common Law: Toward East Asian Community Law’라는 주제로 최종고 교수, ‘The Re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al Law and Crime Rate’라는 주제로 Yongsheng CHEN (PKU)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세션 2에서는 Yasuo HASEBE(UT) 교수가 사회를 맡아, ‘Social Justice and the Rationale of Usury Law’라는 주제로 Defeng XU(PKU) 교수, ‘Personal Insolvency in Japan’라는 주제로 Junichi MATSUSHITA(UT) 교수, ‘Judicial Modification of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라는 주제로 권영준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세션 3에서는 최종고 교수가 사회를 맡아 ‘Competition Law Study in Asian Countries’라는 주제로 권오승 교수가, ‘Globalization of Patenting Business Methods: A Comparison’라는 주제로 Yinliang LIU(PKU)교수, ‘The Procter & Gamble Case from a Japanese Perspective’라는 주제로 Yoshihiro MASUI(UT)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홈커밍데이



서울법대 34회 동문



서울법대 86학번 동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

먼저, 10월 2일에는 제34회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은 먼저 법대 역사관을 방문해 이제는 자신들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대의 역사를 둘러보았으며, 이어 정의의 종에서 타종식을 가졌다. 이후 자리를 옮겨 추억 만들기 동영상 관람 및 축하공연과 모교 장학금 전달 기념행사를 가졌다.

10월 30일에는 86학번 동문들이 졸업 2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동기 회장의 인사로 시작한 축하행사에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참석했다. 또한 학창 시절 은사님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함께 했으며, 해외에 있어 미처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이 보낸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겼다. 이어 고 이상빈 학우의 유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격려하였고, 모교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홈커밍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은 “한자리에 모여 끈끈한 유대감을 다질 수 있었던 자리”라며 “학교와 동문간의 건전한 네트워크 형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제4회 한국 - 독일법 심포지엄

지난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법학연구동 서합홀에서 서울대와 프라이부르크대의 제5회 한국-독일 법 심포지엄이 'Law, Culture and Globalization'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심포지엄 첫 날인 14일, 세션 1에서는 최병조 교수가 사회를 맡아 'Rechts- und Staatssymbolik als Grundlage der politischen Kultur'에 관해 Thomas Wurtenberger 교수가 'Die Verbindung von Freiheits- und Verfassungssymbolik. Ein Beitrag zu historischen Formen der Globalisierung von Rechtskultur'라는 주제로, 최종고 교수가 'Staats- und Rechtssymbol in Süd- und Nordkorea'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Current Issues on Criminal Law (tentative)에 관해서 Wolfgang Frisch 교수가 'Unity and Variety of Criminal Law in Europe'라는 주제로, 이상원 교수가 'The Meaning of Obscenity and Societ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에서는 김건식 교수가 사회를 맡아 'Current Issues on Law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관해 Gerhard Hohloch 교수가 'Zur Entwicklung des außervertraglichen Schadensersatzrechts seit den 2002 in der Schuldrechts- und Schadensrechtsreform erfolgten Rechtsänderungen'라는 주제로, 최봉경 교수가 'Einige Charakteristika des derzeitigen KBGB-Reformversuchs'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Social Change and Challenges to the Constitution'에 관해 Ralf Poscher 교수와 이우영 교수가 발표했다.

심포지엄 둘째 날인 15일, 세션 3에서는 권오승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Current Issues on Competition in Law'에 관해 Uwe Blaurock 교수가 'Regulierung und Wettbewerb'라는 주제로, 이봉의 교수가 'Tension or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Law and IPTV Regulation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Current Issues on Administrative Law (tentative)'에 관해 Rainer Wahl 교수와 박정훈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세션 4에서는 호문혁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Zivilprozess zwischen Rechtsschutzgarantie und Effizienz'에 관해 Alexander Bruns 교수와 오정후 교수가 발표했으며, 이어 'Recent Capital Market Law Reform in Germany and Korea'에 관해 Han no Merkt 교수와 정순섭 교수가 발표했다.

프라이부르크대와는 지난 1997년 협정을 체결한 이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2년 마다 서울과 프라이부르크를 오가면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교 간의 학문적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해외대학 교환 프로그램 설명회



해외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이 커짐에 따라 법대 교류협정체결 현황 및 교환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9월 8일 법학연구동 108호에서 개최하였다.

학생들에게 해외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9월 7일과 8일에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을 안내하고 교과과정 및 학교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제1회 CAMPUS Asia 회의 참석



정종섭 원장과 전종익 기획부원장은 지난 12월 10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ampus Asia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일본 나고야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번 회의는 법학분야에 있어서 캠퍼스 아시아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되었으며, 정종섭 원장은 ‘로스쿨 시스템과 한국 법률가 집단의 미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Campus Asia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일 3국의 주요 대학 간 교류협력프로그램으로, 학생과 교원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 인재육성과 교육연구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P전공 석사과정 201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1학년 IP전공 석사 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12월 10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IP전공 담당 교수진 소개 및 IP전공 국내 교과목 소개,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프로그램 소개와 학기 전 해외 연수 프로그램 안내가 이루어졌다.

IP전공 석사 과정은 2009년 10월 개설되어 지식재산 관리, 기술이전,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국제 법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모든 수강생의 국제 경쟁력 함양, 제고를 위해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와 공동 IP LL.M. 과정을 신설하여 본 과정을 졸업하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는 물론 SCU 법학석사(LL.M., Legum Magister or Legum Magistra)를 공동 수여하고 있다.

법학대학원 201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12월 20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3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정종섭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기정 교무부원장의 교과과정 및 합격자 안내, 고학수 학생부원장의 학생복지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최철웅 학생회장이 학생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고, 서울 의대 노명선 교수가 대학원생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정종섭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시험에 매달리는 시대는 지났으며, 교육을 통해서 법률가를 배출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옥석이 나뉘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의 면학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률가가 될 것을 당부했다.

2010년 서울법대 송년회

2010년 서울법대 송년회가 지난 12월 29일 신한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교수들의 노고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던 이번 송년회에는 법대 교수를 비롯하여 명예 교수들과 겸임 교수들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송년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한해를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다가올 2011년 서울법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IP 장학금 전달식



본교 IP 전공(지식재산 석사과정)이 우수인재를 위해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12월 31일 학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법학대학원 지재권 과목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박성민, 여현동, 우미형, 황경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학생들은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대희 대법관 초청강연

지난 9월 14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미래사회와 법학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안대희 대법관의 강연이 있었다.

안 대법관은 자신이 법조계에서 일한 3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선배의 입장에서 “정의는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일 때는 발견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발견할 수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게 된다. 또한 법률에 대한 충성이 법률가들의 직업윤리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공부를 덜 해서는 안 된다. 계속 학문적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실력이 없으면 이길 소송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실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판결은 법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도 생활 속에서 얻은 생생한 직관이 있어야 된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법률적인 지식 외에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이나 검찰은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법률 이론이 굉장히 발전했다. 판례 이론만 봐도 미국, 독일 등과 함께하는 등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법학은 수출이 되지 않는데 이는 언어문제 때문이며,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언어를 잘해야 한다. 또 법 기술자가 아닌 법 원리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바른 길이요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고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법이 원리 원칙의 학문일 때 진정한 법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초청강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를 주제로 지난 11월 2일 강연을 하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선진 일류 통일국가의 건설'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민심을 보아야 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가 보이고 민심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하고, 학생들에게 "장차 국가의 인재인 서울법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김 지사는 "서울 법대생들은 개인의 출세와 영달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세계인류를 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김 지사는 20여분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강연을 마쳤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초청강연

지난 11월 23일,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지역 및 국가발전'을 주제로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김동호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크게 성공한 원인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5년 동안 아시아권에서는 톱 영화제, 전 세계에서는 7~8위권에 들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화제가 성공하게 된 것은 전략과 목표를 잘 세운 것 때문이다"라고 전하였다. 이어 "영화제가 영화한 번 상영하고 끝나는 영화제가 되면 의미가 없기에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바로 부산이라는 도시를 탈바꿈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에 아시아권 최초로 부산영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부산에서 영화를 찍으면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현재 한국영화 40퍼센트가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은 촬영도시로 거듭났다"면서 영화제와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또, 김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1년 중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외 영화제를 돌아다니며 한국 영화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홍보대사가 되었다. 영화제를 성공시키고 그 성공이 이어지도록 한 바탕에는 법대 출신이라는 자긍심과 4년 동안 법학전공을 한 데서 나오는 잠재적인 역량이 도움을 주었다.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동아시아 계약법원칙 (채무불이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재단법인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계약법원칙(채무불이행)'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채무불이행법 체계, 이행청구 대금감액 동시이행의 항변, 손해배상의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해제의 요건, 계약해제의 효과,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5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제1세션에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협상결과'에 대해 이미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과장이, '상표위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최수영 사무관이 발표하였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정상조 교수와 박준석 교수가 각각 'ACTA협상 주요쟁점'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지적권 집행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토론에는 김기영 안산지원 부장판사와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섰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조석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를, 최계영 교수가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세관절차'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유영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고충곤 LG전자 상무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방송통신시장에서 동등 접근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의 모색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11월 26일 '방송통신시장에서 동등 접근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화와이 와이키키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 제1부에서는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미국 망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우리나라 망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제2부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미국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EU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우리나라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 Competition (CTIC)와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제1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에서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관심제고 및 통상분쟁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외교통상부 및 사단법인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지난 9월 4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로스쿨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첫번째 전국 규모의 국제통상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인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로스쿨, 국제대학원 등에서 총 60개팀 24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6개팀이 9월 4일 본선에 참가하여 열띤 구두변론을 펼쳤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Fairview팀이 우승을 거두어 외교통상부장관 상을, 4강에게 수여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상 및 국제경제법학회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Quartet팀과 고려대학교 8(eight)팀이 차지했다. 우승 및 준우승팀에 대해서는 올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WTO 모의재판 국제경연대회 참가 경비 각 400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제1회 에너지법·정책포럼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POSCO의 후원으로 지난 9월 28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에너지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우영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1부에서는 김희집 Accenture대표, 김성일 서울대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이경훈 POSCO상무가 ‘기후변화가 가져올 에너지 산업의 미래사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2부에서는 이재협 교수의 사회로 원희룡 국회의원과의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이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정책사회’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조홍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방안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에서는 지난 12월 17일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성낙인 헌법·통일법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회의 발표에는 국민대 박정원 교수, 서울대 이효원 교수, 법무법인 지성지평 임성택 변호사, 전북대 한상국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 상명대 신동호 교수가, 지정토론에는 중앙대 김병기 교수, 서울 남부지검 장소영 검사, 개성공업지구지원단 강종석 법제운영팀장, 법무법인 율촌 강남규 변호사, 인제대 박은정 교수, 서울대 한기정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현안으로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금융법무과정 제4기 수료식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식 사진

금융법무과정 제4기 수료식이 지난 12월 1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제4기 금융법무과정은 '장외파생상품의 현상과 과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법조인 및 기업 실무가 등 총 24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길주	대전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이보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김기자	현대증권(주) 과장	이상은	한국씨티금융지주(주) 변호사
박임출	금융감독원 부국장	이창근	법무법인 케이알 변호사
박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정하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박찬기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 서기관	임철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박 혁	중소기업은행 부부장	장희성	오로라법률사무소 변호사
배병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용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태원	삼성증권 변호사	정영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신동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팀장	정재은	신영증권(주) 변호사 (과장)
오영중	법무법인 우신 변호사	주민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윤수복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지현정	하나대투증권(주) 변호사 (차장)
이병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진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0기 수료식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0기 수료식 사진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0기 수료식이 지난 12월 11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제30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지난 1996년 개설 이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법조인 및 기업 실무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51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오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영욱	LG전자 과장	이재욱	롯데백화점 부장
권오혁	SK에너지 부장	박영수	법무법인 산호 변호사	이재희	제일기획 변호사
권혁준	OTIS Korea 부사장	박일규	LG디스플레이 과장	이정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경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우섭	교보생명보험 과장	이한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송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광현	SK가스 과장	송화영	현대모비스 차장	전상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신성식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현식	공정거래위원회 팀장
김동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대섭	한국전력거래소 차장	정재훈	SK텔레콤 차장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염규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사	정진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병식	LG U+ 차장	오수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성우	포스코 변호사
김성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오승현	KCC 이사	조장호	삼성전자 부장
김성정	KCC 차장	유태선	LG디스플레이 차장	차동인	공정거래위원회 검사
김원진	현대자동차 이사	이 갑	롯데백화점 이사	최건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원	LG화학 변호사	이동호	롯데시네마 이사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김종수	SK에너지 상무	이상철	삼성화재보험 부장	하양욱	GS홈쇼핑 부장
김준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이승민	현대자동차 변호사	한만엽	SK이앤에스 팀장
남윤호	삼성전자 변호사	이윤노	KCC 부장	황현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 모집안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에서는 14기를 모집하고 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최고지도자과정 홈페이지 <http://alp.snu.ac.kr> 또는 전화 02)880-916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은 법조계 인사를 비롯하여 대기업과 공기업 임원, 회계사와 의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교수동정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9월 10일 BESETO심포지움에서 Perspectives of East Asian Common Law를 발표하고, 9월 15일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대학 <법, 문화, 세계> 심포지움에서 Staats- und Rechtssymbolik in Korea를 발표하였다.

9월 25일에는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개최된 세계법철학회(IVR) 이사회에 참석하고, 프라이부르크대학을 둘러 한국동창회장으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동창회에서는 12월 10일 <자유성(Freiburg)>이란 뉴스레터를 창간하였다.

이상면 교수

이상면 교수는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한국본부 회장으로 12월 4일 서울대 법대 서암홀에서 '한국-중화권 FTA의 법적 쟁점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자오귀차이(趙國材)교수는 중국-대만간의 ECFA에 관하여,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한중 FTA 대책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했다. 이상면 교수는 '한국-대만간 FTA 모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교수의 이 주제에 대한 발표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의 영향하에서 한국과 미수교국 대만 간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국내외에서 처음 있는 발표여서 주목을 끌었다.

이 교수는 또 이에 앞서 11월 13일과 14일 대만 카오슝에서 열린 해양공업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중국해 동북부 분쟁해역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중국어로 발표하였다.

최병조 교수

최병조 교수는 9월 1일부터 인문대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주임으로 취임하였다.

안경환 교수

안경환 교수는 지난 10월 16일 타이완국립대학과 11월 2일 베를린자유대학 등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였다.

성낙인 교수

성낙인 교수는 11월 26일 태평로클럽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대의원총회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 연임되었다. 또한 12월 5일부터 열린 세계헌법학회 정기총회 겸 학술대회에 한국대표로 각국대표총회(Council Meeting)에 참석해 세계헌법학회의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회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각국의 헌법학자 1천여명이 참석해서 1주일간 진행되었다. 제9회 대회는 4년 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된다.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는 11월 4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신희택 교수

신희택 교수는 지난 11월 1일 서울대학교 발전실행위원회 사회봉사분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또한 12월 1일에는 법무부로부터 국제투자분쟁관련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에는 Yale Law School과 홍콩 City University Law School이 공동주최한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외자도입법제와 한-미 FTA'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석광현 교수

석광현 교수는 지난 11월 20일 중국 사회과학원(CASS) 국제법연구소가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Some Observations on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 Korean Law Perspective'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고학수 교수

고학수 교수는 지난 12월 1일 법무부로부터 국제투자분쟁관련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교수신간소개

정인섭 교수 _ 에센스 국제조약집 / 박영사

『에센스 국제조약집』은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이다. 수록 대상은 국제법 수강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판단되는 17종의 국제문서와 4종의 국내법으로 한정하여 엮어냈다.

김재형 교수 외 _ 민법 I : 계약법 / 박영사

양창수 대법관과 공저한 『민법 I : 계약법』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계약관계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민법의 기본제도 또는 중요법리에 대하여는 그 전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든 쟁점 및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정금식 교수 외 _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 2 : 형사편 2 (규장각 소장본) /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유일본인 『特敎定式』과 『受教謄錄』을 번역·정리하고 원문을 영인한 것이다. 그동안 조선후기 형사법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있었지만, 형사 관련 수교 자료가 정리·소개 되어 있지 않아 개별수교를 활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후기 형사법을 중심으로 법의 변화, 나아가 사회변동에 따른 법적 대응책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최종고 교수



이상면 교수



최병조 교수



안경환 교수



성낙인 교수



윤진수 교수



신희택 교수



석광현 교수



고학수 교수



에센스
국제조약집



민법 I : 계약법



조선후기 수교
자료 집성 2
: 형사편 2

법과대학 / 법학연구소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2010-09-01	법무법인 지평지성	3,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12-16	곽성희	20,00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9-03	한화종합화학(주)	2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16	법무법인 케이씨엘	3,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03	한화손해보험(주)	1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9-03	(주)한화갤러리아	1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2	법무법인 양현	3,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03	(주)한화건설	2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3	곽성현	20,00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9-03	한화석유화학(주)	2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3	법무법인 화우	5,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09	법학발전재단	25,000			2010-12-24	법무법인 올촌	5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0-09-11	권순일	1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0-12-24	송지연	5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13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 서	2010-12-27	법무법인 (유)태평양	5,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14	대한생명보험(주)	3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8	법무법인 세종	5,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16	한화증권	1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 임
2010-09-20	(주)한화	1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9-24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12-29	신희택	10,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12-30	법무법인 세종	10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0-09-30	(주)보담	1,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12-30	(주)보담	1,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30	이상원	3,000,000	법과대학	위 임	2010-12-3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10-04	한화손해보험(주)	2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2-31	손경식	50,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10-12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 서	납입액 기간 합계 (10.09.01-10.12.31)			833,315,000	
2010-10-14	법무법인 화우	10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납입액 연간 합계 (10.01.01-10.12.31)			2,023,345,000	
2010-10-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법학발전재단				
2010-10-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 임	납입일	성명	납입액	기금용도	
2010-10-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9-07	법무법인 바른	50,000,000	최고지도자과정 운영	
2010-10-29	(주)보담	1,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09	법무법인 (유)화우	5,000,000	위 임	
2010-11-05	신희택	2,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9-29	최고지도자과정 제12기	100,000,000	위 임	
2010-11-12	박 준	15,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10-26	이강국	300,000	위 임	
2010-11-12	박 준	15,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0-11-01	최종고	5,000,000	위 임	
2010-11-22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11-17	법대 86학번 동기회	50,000,000	위 임	
2010-11-24	법무법인 바른법률	20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0-12-14	서동석	3,000,000	장학금	
2010-11-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 임	납입액 기간 합계 (10.09.01-10.12.31)			213,300,000	
2010-11-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납입액 연간 합계 (10.01.01-10.12.31)			485,586,045	
2010-11-30	(주)보담	1,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12-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12-13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 서					
2010-12-15	한자영	60,000,000	법과대학	학 술					

기관명	일시	일정	일시	일정
법학연구소	09. 08	<제198회 법과문화포럼>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입법경위, 기본구조와 그내용	11. 08	<Foreign Authority Forum> Morality,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Constitution of 1787
	09. 20	<Foreign Authority Forum> The use of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11. 10	<제204회 법과문화포럼> 공포와 폐막: 두뇌를 이끄는 쌍두마차
	09. 24	<Foreign Authority Forum> International Law, Peace and Stability : New Challenges and New Developments	11. 16	<Foreign Authority Forum> More recent European and South America trends related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09. 28	<제199회 법과문화포럼>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는 음악	11. 17	<제205회 법과문화포럼> 인권변론 한시대의 증언(1974-1988년)
	10. 06	<제200회 법과문화포럼> 구한말 일본의 영사재판과 판결문 읽기	11. 19	<Foreign Authority Forum> Globalization and Legal Education
	10. 08	<국내학술대회>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	11. 24	<제206회 법과문화포럼> 재산과 명예: 그 본질은 무엇인가?
	10. 13	<제201회 법과문화포럼> 현대사건과 배병우의 작품세계	12. 01	<제207회 법과문화포럼> 법실무 교육의 현황과 과제
	10. 25	<Foreign Authority Forum> "Sind Pflichtteils anspr che von Kindern noch zeitgem B"	12. 03	<Foreign Authority Forum> 조여도와 독도의 비교
	10. 27	<제202회 법과문화포럼> Strategies for Building a Successful Environmental Law Program: Teaching in Five Dimensions	12. 08	<제208회 법과문화포럼> 학생의 정신건강 - 법과대학과 법학대학원을 중심으로
	11. 02	<Foreign Authority Forum> Social Cost of Carbon and U.S. Regulatory Review	12. 11	<국내학술대회> 민법의 개정과 민법학의 최근 동향
금융법센터	09. 10 ~ 12. 07	금융법무과정 제4기 "장외파생상품의 현상과 과제"	09. 10 ~ 11. 26	금융강좌 (국제통상·거래법센터 공동주최)
	09. 09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10. 07 ~ 09	Philip Jimenez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초청강연
	09. 16 ~ 18	Alexander J. Wurzer 교수 (CEIPI-University of Strasbourg)	10. 25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CTA)세미나
기술과법센터	09. 17	초청강연대학에서의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세미나	11. 25	나가사와 유키오 교수 (동경대 법대) 초청강연
법외지배센터	11. 19	법외지배시리즈 10주년 기념 세미나		
공익산업법센터	10. 01	<학술세미나>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관대규제의 정경 - 학제적 접근	11. 05	<학술세미나> 방송 통신법제의 정경과 과제
	10. 29	<학술세미나> 방송통신시장에서 이용자보호와 분쟁해결절차	11. 26	<학술세미나> 방송통신시장에서 동등 접근 관련 규제의 정경과 해법의 모색
공익인권법센터	09. 07 ~ 11. 30	제4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11. 05	<토론회> 형법개정안과 인권-바람직한 형법개정의 방향
	09. 08 ~ 12. 15	제4회 NGO와 법외지배 공개강좌	11. 17 ~ 11. 18	<해외저명인사 초청강연> Human Rights in Asia - Muneer A. Malik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 Surya Subedi (캄보디아 UN인권특별보고관)
	10. 27	<공익인권포럼> 난민개념의 재검토	12. 10	고 조영래변호사 20주기 추모모임
국제통상·거래법센터	09. 04	제1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09. 10 ~ 11. 26	금융강좌 (금융법센터 공동주최)
	09. 04 ~ 12. 11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30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11. 19	독점규제법 30년 회고와 전망 1차 중간발표
경쟁법센터	10. 13	제2차 정책세미나 "카르텔 및 지식재산권남용에 관한 경쟁법 집행의 최근 동향" (주최:경쟁법센터, 주관:법무법인 광장, Ropes&Gray)	11. 26	와세다대 + 서울대 경제법 공동세미나
	11. 05	한국경쟁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주최 "최근 경쟁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12. 10	독점규제법 30년 회고와 전망 2차 중간발표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09. 28	제1회 에너지법정책포럼 (POSCO 후원)	11. 27	제3차 학술포럼 환경법의 법리와 법정책 -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심으로(환경부 후원)
	10. 28 ~ 29	한국-인도네시아 REDD+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for the Cooperation of Korea-Indonesia REDD+ (서울대 법학대학원·농업생명과학대학 후원)		
헌법·통일법센터	12. 17	<학술대회> 개성공단 법률체계 확립방안(통일부후원)		